

#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Dual-career Couples' Role Expectations, Role Conflicts and Marital Satisfactions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金慶信

전남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金吾男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Kyeong Shin, Kim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Oh Nam, Kim

## 〈목 차〉

I. 서론

IV. 연구 결과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to find out general trends of dual-career couples' role expectations, role conflicts, and marital satisfactions and to estimat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related variables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role conflicts and marital satisfactions.

For these objectives two kinds of questionnaire were used and the data were obtained through 169 dual-career coupl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Dual-career couples' role expectations and marital satisfactions were relatively high but role conflicts were not. Husbands' role expectations were higher than them of wives but wives' role conflicts and marital satisfactions were higher than them of husbands.

2) Dual-career couples' role expectations, role conflicts, and marital satisfactio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communication, role related variables and job

related variables.

3) Husbands' role conflicts and marital satisfactions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role expectations. Wives' role conflicts and marital satisfactions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communication satisfaction husbands' housework aid, and role expectations.

## I. 서 론

산업혁명 이후 여성 노동력의 활용이 사회로 확대되면서 현대사회는 성역할에 있어 더욱 유동적이고 가변적이 되었으며 여성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남편혼자의 수입만으로 경제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사회는 자녀 양육 문제의 대안을 제시해 주기 시작하였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더욱 더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게 되어 맞벌이 부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의 역할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가부장적 가치관이 강하게 잔존해 있어, 취업여성은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여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직업역할보다는 가정역할을 더 우선해서 담당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어 온 한국사회 나름의 갈등구조로 인해서 생기는 상호모순된 역할기대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처럼 맞벌이 가족의 문제가 중시되어감에 따라 가족원간의 역할기대나 갈등 혹은 이에 관련된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논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가족의 심리적 태도 변인과 역할갈등 및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부인의 직업, 사회적 경제적 지위, 취업사유, 남편의 지지도, 성역할태도, 직업만족도, 직장생활에서 받는 다양한 보상 등의 변인들이 주로 맞벌이부부의 역할이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성희, 1989; 허영옥, 1993; Vonny & Philliber, 1992; Walter & Mckenry, 1985).

그러나 지금까지의 맞벌이가족에 관한 연구들은 부부나 가족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주로 취

업부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맞벌이 부부 모두의 역할관계와 결혼만족도를 비교연구한 경우로는 Galambos와 Silbereisen(1989), Thomas, Albecht와 White(1984) 등이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Yove와 Brett(1985)가 맞벌이 부부와 비맞벌이부부를 비교하여 연구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맞벌이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최규련(1993), 서광희·조병은(1993) 등의 연구가 있으나 대부분 결혼만족도를 중심으로 역할갈등 및 평가가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연구결과에 치우치고 있어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를 모두 관련시킨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영향변인에 있어서도 대화, 역할분담, 성역할태도, 직업관련변인 등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므로 부부의 결혼만족은 어떠한 변인과 관련되는지 특히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이 결혼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부부상호관계에 기초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분석되어져야 하며 이를 근거로 부부의 결혼만족을 향상시키는 변인을 모색해 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배경변인이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역할기대,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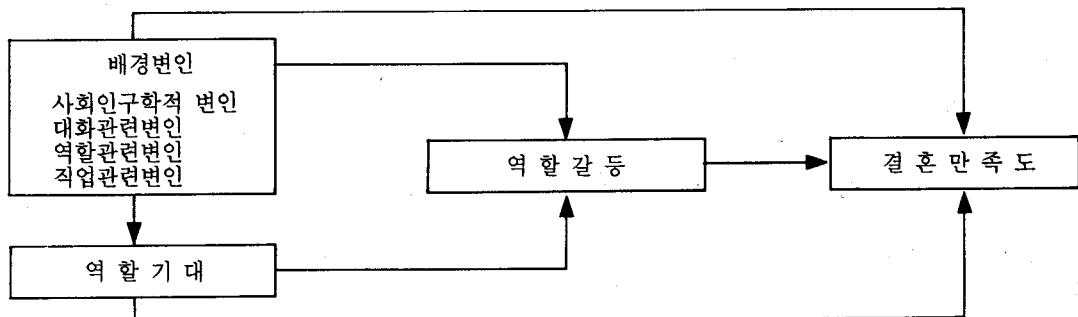
1)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배경변인별로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3) 배경변인과 역할기대가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배경변인, 역할기대와 역할갈등이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근거로 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1985;Stanley, Hunt & Hunt, 1986). 그리고 결혼만족도는 부인보다는 남편이 더 높은 만족을 보였고(최규련, 1993;Albrecht & White, 1984;Vannoy & Philibert, 1992), 부인의 경우 남편에 대한 만족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정의 경제상태, 남편의 자지, 가족생활 순으로 나타났고(이정숙, 1990;정혜정, 1985), 남편은 가계경제역할영역에서 높은 만족을 보



〈그림 1〉 연구 모형

## II. 이론적 배경

### 1.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및 관련변인

맞벌이부부의 역할기대에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Mederer(1993)의 연구에서는 취업부인보다는 남편이 더 높은 기대를 보였고, 김순주(1994)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기대가 높게 나타난 영역이 가사분담자역할, 부모역할, 가계경제관리역할 등이었고 남편의 기대가 높게 나타난 영역이 대외적 역할, 배우자역할, 부양자 역할 등이었다. 또한 역할갈등의 경우 부인이 남편에 비해 역할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수연·김득성, 1994; Galambos & Silbereisen, 1989; Voydanoff & Kelly, 1984), 특히 부인은 자녀양육영역에 많은 갈등을 느끼고(이정숙, 1990; 최자령, 1991; 허영숙, 1993), 남편은 남편의 가사참여를 요구하는 부인의 압력, 부인의 내조부족, 의사결정시 부인의 발언권 강화 등의 이유로 갈등을 느낀다(Burke & Weir, 1976; Kelly & Voydanoff,

였다(김순주, 1994).

이러한 일반적 경향이외에 여러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변인이 분석되어져 있는데 역할기대에 관련된 변인으로는 먼저 연령으로 부인의 연령이 적을수록, 막내자녀의 연령이 6세이하일 경우 남편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가족형태에서도 핵가족일 경우 남편에 대한 기대가 높다(김미란, 1985; 이정우·이미선, 1995). 또 교육수준이나 소득에서도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김옥엽, 1981; Sakyi & Rollins, 1989),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 더 높은 기대를 보였다(Mederer, 1993). 또한 부부간 불평등성인지가 높은 경우,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졌을 경우에도 더 높은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영, 1985; 안은자, 1983; 이옥자, 1983; Mederer, 1993).

역할갈등에 관련된 변인으로는 교육수준에 있어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연령이 30대보다는 40대나 50대인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직업지위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막내자녀연령이 낮은 경우 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구혜령, 1991; 김수연·김득성, 1994; Frone, Barnes &

Farrell, 1994; Voydanoff & Kelly, 1984; Walter & McKenry, 1985). 또한 대화관련변인 중에서는 부부의 대화시간이 적고, 대화만족도가 낮을 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이정우·장병옥, 1987; 최규련, 1993). 역할분담 및 태도변인에서는 남편의 지지가 낮은 경우,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인 경우에 부인의 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안선영, 1987; 이정숙, 1990; Walter & McKenry, 1985). 또한 직업관련변인중에서는 취업동기가 주로 경제적인 이유인 경우, 장시간의 근무시간과 융통성이 적은 근무일정인 경우, 직업만족도가 낮은 경우, 직업에 높은 몰입을 하는 경우, 일과 가정생활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 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강성희, 1989; 김영희, 1992; 이정숙, 1990; Voydanoff, 1988; Walter & McKenry, 1985).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변인으로는 결혼지속년수와 연령이 낮을 때, 남편의 직업지위나,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높을 때, 자녀수가 적을 때 등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화자·윤종희, 1991; 서동인, 1985; 손현숙, 1995; 안선영, 1987; 이정숙, 1990; Erickson, 1993; Jenkins & Folk, 1994; Thomas, Albrecht & White, 1984; Vannoy & Philliber, 1992). 반면 남편의 직업종류,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결혼적용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정연, 1987; 조은숙, 1990)도 있어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일관성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화관련변인의 영향을 보면 부부간에 대화에 만족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효율적인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김화자·윤종희, 1991; 서동인, 1985; 최규련, 1993), 역할분담 및 태도변인으로는 남편의 지지가 높은 경우, 불공평인지가 낮은 경우, 부부간 태도와 가치가 유사한 경우, 부부가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갖는 경우, 특히 남편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에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였다(이정숙, 1990; 최규련, 1993; 허영옥, 1993; Erickson, 1993; Houseknecht & Macke, 1981; Pina & Bengton, 1993; Vannoy & Philliber, 1992; Zvonkovic, Schmiege & Hall, 1994). 또한 직업관련변인중에서는 부인의 근무시간이 많지 않을 경우, 부부각자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안선영, 1987; 이정숙, 1990; Galambos & Silbereisen, 1989).

종합해보면 낮은 연령과 높은 교육수준은 높은 역할기대, 낮은 역할갈등과 높은 결혼만족을 보였고,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역할기대와 높은 역할갈등, 높은 결혼만족을 나타내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역할기대와 갈등, 높은 결혼만족을 보였고, 결혼지속기간은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일부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이 일관성있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반면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낮은 역할기대, 높은 역할갈등과 높은 결혼만족을 보였고, 불공평인지가 높은 경우 높은 역할기대와 높은 역할갈등, 낮은 결혼만족을 나타내었으며, 직업에 만족한 경우에는 낮은 역할갈등과 높은 결혼만족을 나타내는 등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히 맞벌이 부부의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직업종류, 결혼기간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대화관련변인, 역할분담 및 태도변인, 직업관련변인 등의 배경변인이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역할기대와 역할갈등, 역할기대와 결혼만족도,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로 나누어 그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와 역할갈등의 관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기대수준이 높은 경우 역할갈등도 높게 나타났는데, 역할기대수준에 있어 자신과 타인이 기대하는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개인이 느끼고 있는 다중역할이 과중하고 복잡할 때, 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역할변동이 필요할 때, 역할기대와 수행간의 불일치가 심할 때 역할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김명자, 1981; Keith & Schafer, 1985; Saxton, 1972; Voydanoff, 1988). 그리고 배우자로부터의 가사분담에 대한 지나친 요구와 기대가 높을수록 역할갈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정자, 1990; Mederer, 1993; Pina & Bengton, 1993; Tiedje et al, 1990).

역할기대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보면 부정적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기대가 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상반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로부터 가사분담에 대한 지나친 요구가 있을 때, 역할기대가 높을 때, 그리고 부부가 역할을 다르게 인지할 때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순주, 1994; 서광희·조병은, 1993; Burr, Day & Bahr, 1993; Pina & Bengton, 1993; Vannoy & Philliber, 1992; Tiedje et al, 1990) 반면, 김득성(1980)과 Jenkins & Crouter(1990)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역할기대가 결혼만족도에 많은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연구에서도 취업주부인 경우 부인의 취업과 다종역할수행으로 인해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비취업주부에 비해 결혼만족이 감소되고 이혼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Kingston & Nock, 1987)와 맞벌이부부가 일반 부부에 비해 결혼만족이 높으며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이나 긴장도 일반부부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적응해야 할 문제이며 대처방법에 따라 긍정적 결과도 가능하다는 연구결과(Kurdek, 1995; Seccombe, 1986; Spitz, 1988) 등 상반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역할긴장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는 증가한다는 결과가 지배적이다(김명자, 1981; 안선영, 1987; 이정숙, 1990; 이정연, 1987; Bahr, Chappell & Leigh, 1983). 특히 남편의 경우 역할갈등이 결혼만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부부역할갈등이 결혼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규현, 1993; 허영숙, 1993; Galambos & Silbereison, 1989; Sears & Galambos, 1992). 따라서 전반적인 연구결과로 볼 때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역할긴장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관계가 있음이 분명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와 결혼만족도,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등으로 그 관

계를 분리하여 파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배경변인과 역할기대, 역할갈등이 결혼만족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가 양방향적일 수 있으나, 여러 연구들(김순주, 1994; 이정숙, 1990; Thomas, Albrecht & White, 1984)에서 상호영향보다는 역할기대와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방적 결과를 강조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역할기대와 역할갈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 관계만을 파악하고자 함을 제한점으로 밝히는 바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도구

##### 1) 배경변인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부부각자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종류, 월평균소득, 결혼기간, 자녀수, 가사조력자여부, 가족형태, 총 8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화관련변인으로는 배우자와의 하루평균 대화시간 및 대화만족도를 설정하였고, 가정내 역할분담 및 태도에 관련된 변인은 5문항으로 남편이 가사일을 어느 정도 도와주는지를 측정한 남편의 가사조력도, 응답자 자신이 가정의 중요의사결정자인가를 묻는 가정내 의사결정 참여정도,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의 호응도를 묻는 성역할태도(2문항), 배우자와의 가사노동분담지각에 관련된 불공평인지도를 설정하였으며, 직업관련변인은 3문항으로 남편이 어느 정도 부인의 직업에 이해와 지지를 해주는지를 측정한 남편의 부인직장생활지지도, 부부 각자가 지각한 부인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직업과 가족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지를 측정한 직업과 가족 중요인지도를 설정하였다. 배경변인 중 대화관련변인, 역할분담 및 태도변인, 직업관련변인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까지 5점 Likert형으로 구성하였다.

## 2) 역할기대와 역할갈등

역할기대와 역할갈등도구는 선행연구들(김순주, 1994; 안선영, 1987; 이정숙, 1990)을 토대로 작성하였는데, 역할기대는 각 문항마다 “부인의 직장생활로 인해 자녀양육에 지장이 없기를 바란다”, “가사일에 지장이 없기를 바란다”, “(시)부모와의 관계에 지장이 없기를 바란다”, “직업적 성공이 있기를 바란다”, “집안행사에 지장이 없기를 바란다”, “작업적 성공이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건강과 스트레스해소에 지장이 없기를 바란다” 등의 6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역할갈등변인도 “부인직장생활로 인해 자녀양육에 지장이 있어 갈등을 느낀다”, “가사일에 지장이 있어 갈등을 느낀다”, “(시)부모와의 관계에 지장이 있어 갈등을 느낀다”, “집안행사에 지장이 있어 갈등을 느낀다”, “직업적 성공에 지장이 있어 갈등을 느낀다”, “나의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지장이 있어 갈등을 느낀다”의 6문항으로 각 영역에서 갈등을 느끼는 정도를 각각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 Likert형으로 구성하였고 총점수범위는 각각 6-30점이다.

## 3)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도구는 선행연구들(Spanier, 1976; Roach, Frazier & Bowden, 1981)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였다. 즉 친밀감, 의사소통, 성생활, 시가관계, 자녀관계, 역할수행, 재정문제, 결혼관련 디스트레스를 각각 3문항씩 총 24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 Likert형으로 구성하였고 총점수범위는 24-120점이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를 측정한 결과, 역할기대에서 Chronbach's  $\alpha$  값이 남편은 .929, 부인은 .807로 나타났으며 역할갈등에서 남편은 .976, 부인은 .943으로 나타났고, 결혼만족도에서는 남편은 .878, 부인은 .921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척도의 문항수 및 신뢰도(Cronbach's  $\alpha$ )

척도	문항수	남편	부인
역할기대	6	.929	.807
역할갈등	6	.976	.943
결혼만족도	24	.878	.921

## 2. 조사대상

###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맞벌이부부로서 남편과 부인을 한쌍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질문지는 맞벌이 부부의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면접조사하거나 교사의 협조아래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통하여 그 부모를 대상으로 응답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총 420명 210쌍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답안을 제외하고 총 338명 169쌍의 자료를 최종 통계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1994년 5월 24일부터 4일간 40쌍 8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일부 수정한 질문지로 1994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남편의 연령은 40대가, 부인의 경우에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대졸, 중졸 순으로 나타났고, 직업종류로는 남편의 경우 사무직이 43.2%, 부인의 경우 자영업·판매직이 33.1%로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소득은 남편의 경우 101-150만원, 부인의 경우 31-60만원이 41.4%, 33.7%로 각각 나타났고, 결혼기간은 11-15년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가사조력자는 없는 경우가 58.0%로 나타났다.

##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처리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쌍체 t검증, one-way ANOVA, Duncan검증, 중다회귀분석 등이며 이상과 같은 통계

처리는 SAS/PC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역할기대를 영역별로 보면 남편의 경우 부인의 취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69)

		남 편		부 인				가 족	
		N	%	N	%			N	%
연령	30대	37	21.9	89	52.7	남편 출생 순위	만이 중간 막내	55	32.5
	40대	121	71.6	77	45.5			85	50.3
	50대 이상	11	6.5	3	1.8			29	17.2
교육 수준	국졸이하	4	2.4	6	3.6	결혼 기간	10년이하 11-15년 16-20년 21년이상	14	8.3
	중졸이하	20	11.8	41	24.3			74	43.8
	고졸이하	77	45.6	79	46.7			63	37.3
	대졸이상	68	40.2	43	25.4			18	10.7
직업	단순노무직	13	7.7	25	14.8	가사 조력자	시부모 친정부모 파출부 없다 기타	12	7.1
	서비스직	18	10.7	26	15.4			26	15.4
	자영업·판매직	46	27.2	56	33.1			24	14.2
	사무직	73	43.2	48	28.4			98	58.0
	전문직·경영관리직	19	11.2	12	7.1			9	5.4
	기 타			2	1.2			140	82.8
남편 (부인) 소득	50만미만(30만미만)	1	0.6	10	5.9	가족 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기타	21	12.4
	51-100 (31-60만원)	57	33.7	57	33.7			8	4.8
	101-150(61-90만원)	70	41.4	26	15.4			10	5.9
	151-200(91-120만원)	31	18.3	43	25.5	자녀수	1명이하 2명 3명 4명이상	82	48.5
	201-300(121-150만원)	6	3.6	16	9.5			51	30.2
	301이상(151만이상)	4	2.4	17	10.1			26	15.4
종교	기독교	31	18.3	53	31.5	주거 형태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62	36.7
	천주교	24	14.1	29	17.3			102	60.4
	불교	35	20.6	34	20.2			5	2.9
	기 타	6	3.5	2	1.1				
	없음	77	45.5	17	10.0				

#### IV. 연구 결과

##### 1. 역할기대·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 및 부부간 차이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은 〈표 3〉과 같다. 역할기대의 경우 남편과 부인집단 모두 중간점인 3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역할갈등은 대부분 3점이하로 나타났다.

업으로 인해 자녀양육에서 가장 지장이 없기를 기대하고 있고 다음으로 가사일, 부모와의 관계, 집안행사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인이 취업을 하였을 경우에도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어온 자녀 양육문제에서나 가사일에 있어 여전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인도 남편과 동일하게 자녀양육과 가사일에 높은 역할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부인 역시 전통적인 역할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

〈표 3〉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변 인		남 편		부 인		t
		M	SD	M	SD	
역 할 기 대	자녀양육	3.95	0.95	3.86	1.02	1.08
	가사일	3.68	0.95	3.74	1.08	-0.63
	시부모관계	3.60	1.07	3.31	1.23	2.30*
	집안행사	3.49	1.10	2.93	1.16	4.42***
	직업적성공	3.17	1.13	3.48	1.10	-2.85**
	건강문제	3.27	1.24	3.53	1.14	-1.56
역 할 갈 등	전 체	21.05	4.75	20.66	4.27	0.88
	자녀양육	2.54	1.11	2.47	1.29	0.58
	가사일	2.48	1.05	2.44	1.25	0.12
	시부모관계	2.08	1.05	1.89	0.97	1.47*
	집안행사	2.14	0.95	2.50	1.27	-3.48***
	직업적성공	1.94	0.98	2.36	1.24	-1.98*
결 혼 만 족 도	건강문제	2.16	1.02	2.17	1.22	-1.63
	전 체	13.28	4.92	13.74	5.76	-1.04
	애정적부부관계	11.54	2.07	11.64	2.29	-0.27
	의사소통	10.70	2.18	10.64	2.35	0.32
	성생활	10.64	2.16	10.70	2.19	-0.21
	시가와의 관계	11.34	2.81	12.07	2.66	-2.39*
결 혼 만 족 도	자녀와의 관계	11.05	1.98	11.33	2.18	-1.16
	역할수행	10.84	2.04	11.09	2.36	-1.07
	재정문제	10.83	2.04	11.34	2.01	-2.31*
	디스트레스	11.05	2.54	11.72	2.59	-2.61**
	전 체	92.11	13.01	94.57	13.71	-1.74

\* p&lt;.05 \*\* p&lt;.01 \*\*\* p&lt;.001

주고 있으나, 건강문제, 직업적 성공 등에 있어서도 역할기대가 높게 나타나 남편보다 다소 변화된 역할기대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역할기대에 있어 시부모 관계, 집안행사, 직업적 성공영역에서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시부모관계나 집안행사면에서는 부인보다는 남편이 더 많은 역할기대를 하고 있으며 직업적 성공에 있어서는 남편보다는 부인의 역할기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경우 비교적 전통적인 역할개념을 고수하고 있고 부인의 경우는 근대적인 역할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양적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남성에게는 여전히 근본적인 남녀역할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부인의 변화를 통해서 볼 때 부부갈등의 발생소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러선행연구들(김명자, 1981; 김순주, 1994; 서광희·조병은, 1993; Bahr et al, 1983)에서 밝힌 바 있다.

역할갈등에서는 남편의 경우 역할기대와 마찬가지로 자녀양육과 가사일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역할갈등을 느끼고 있으나, 부인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가사일 이외에 집안행사나 직업적 성공영역

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역할갈등을 느끼고 있어 역할기대와 비교해 볼 때 남편과의 기대차이가 갈등에 연결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업적 성공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기대의 변화로 인해서 부부간 갈등을 많이 유발시킴을 알 수 있어 여성생활의 변화에 대한 남편의 인식이나 태도변화가 가족갈등의 감소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선행연구들(Galambos & Silbereisen, 1989; Voydanoff & Kelly, 1984)에서 지적된 내용들과도 일치하고 있다.

결혼만족도는 모두 중간점인 9점(한 영역당 3문항 이므로 점수범위는 0-15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경우 애정적 부부관계영역에서, 부인의 경우 시가와의 관계영역에서 높은 만족을 보였고, 이외에 남편과 부인 모두 자녀와의 관계영역이나 디스트레스지각영역에서 다른 영역보다 다소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시가와의 관계, 재정문제와 디스트레스영역에서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남편보다는 부인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선행연구(이정연, 1987) 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이정숙, 1990; 허영옥, 1993)에서 지적한 것처럼 취업부인의 경우 시가와의 접촉시간이 적어 갈등발생소지가 적고, 취업이 재정적인 도움을 주며, 시가로부터 가정살림이나 자녀양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배경변인에 따른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 만족도

### 1) 배경변인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역할기대

〈표 4〉, 〈표 5〉, 〈표 6〉은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변인을 중심으로 제시되었으며, 먼저 역할기대에 차이를 보이는 변인을 보면 〈표 4〉와 같다.

one-way ANOVA 결과 남편의 경우 가족과 직업의 중요인지도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직업보다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길 때 역할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정지향적인 남편일수록 가정생활전반에 걸친 역할이 원만히 수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인의 경우 역할기대에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교육수준, 남편의 소득, 자신의 소득, 직업종류 등이며, 그외 변인 중에서는 남편보다 모든 면에서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느끼는 불공평인지도, 부인직업생활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 부인직업생활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집단에서, 남편소득이 101-15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부인소득이 91-12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높은 역할기대를 나타내며 직업종류에서는 사무직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역할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불공평인지가 높은 집단에서, 남편의 지지가 많은 집단에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 집단에서 역할기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인의 경우 전통적인 역할구조에 대한 변화의 요구도가 높고 실제로 남편의 지지 등의 역할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지향성 역시 높은 적극적인 여성이 역할기대를 높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김명자, 1981; Keith & Schafer, 1985; Voydanoff, 1988)의 연구와 동일한데 맞벌이가족에 있어 역할기대와 역할갈등간의 정적 상관관계로 볼 때 원활한 역할관계를 위하여 남편과의 관계나 직업조건, 성역할에 대한 개념 등의 변화가 좀 더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배경변인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역할갈등

배경변인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역할갈등에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표 5〉와 같다.

남편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기타 변인 중에서는 성역할 태도, 부인의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역할태도가 중간과 보수적인 집단에서, 부인의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가 낮은 집단에서 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즉 남편이 전통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부인의 직업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갈등은 발생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안선영(1987), 최자령(1991) 등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이다.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역할기대

	변 인	N	M	F	D
남 편	가족·직업 중요인지도	가족>직업 가족=직업 가족<직업	121 34 13	21.54 20.77 17.31	A B B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대학이상	46 75 46	19.44 20.24 22.54	B B A
		남편소득	100만원이하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이상	58 68 31 10	19.10 22.07 21.84 23.20
부 인	부인소득	60만원이하 61-90만원 91-120만원 121만원이상	66 26 42 33	19.42 19.81 22.64 21.27	B B A BA
		단순노무직 자영업·판매직 서비스직 사무직 전문·경영관리직	24 55 26 48 12	18.96 20.82 19.81 22.25 19.25	B BA BA A B
		불공평 인지도	하 중 상	18.84 20.44 21.56	B BA A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 지지도	하 중 상	18.64 20.04 21.64	B BA A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하 중 상	18.31 19.61 21.86	B B A

\* p&lt;.05 \*\* p&lt;.01 \*\*\* p&lt;.001

주) 남편의 가사조력도, 불공평인지도,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평균+표준편차)이상은 상집단으로, (평균-표준편차)이하는 하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부인의 경우에는 결혼기간이 10년이하 집단보다 11년이상인 집단에서 역할갈등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생활주기상 자녀 중고등교육기에 해당하여 역할상의 다양한 발달과 업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임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이정숙, 1990; 허영옥, 1993; Frone et al, 1994)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결혼지속년수가 적은 젊은 부부일수록 남편의 협조와 애정이 많고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역할갈등

변 인			N	M	F	D
남 편	성역할 태도	진보적	18	9.56		B
		중 간	109	13.55	6.40**	A
		보수적	40	14.20		A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 지지도	하	21	14.95		A
		중	61	14.18	4.40*	BA
		상	85	12.21		B
부 인	결혼기간	10년 이하	14	10.00		B
		11-15년	72	13.24	3.43*	
		16-20년	63	15.03		A
		21년 이상	18	14.28		A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30분이하	28	16.71		A
		31-60분	44	13.25	3.12*	B
		61-120분	48	13.00		B
		121분 이상	47	13.19		B
	배우자와의 대화만족도	만족하지않는다	36	17.56		A
		보통이다	67	13.42	12.73***	B
		만족한다	64	11.94		B
	성역할 태도	진보적	51	12.28		B
		중 간	49	14.33	3.96*	BA
		보수적	67	15.90		A
	남편가사 조력도	하	51	15.90		A
		중	49	14.33	3.96*	BA
		상	67	12.28		B
	불공평 인지도	하	32	10.47		B
		중	57	13.77	7.83***	A
		상	78	15.06		A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 지지도	하	25	15.88		A
		중	54	15.24	6.88**	A
		상	87	12.26		B
	직장생활에 대한만족도	하	24	15.17		A
		중	70	13.83	4.50*	BA
		상	73	12.34		B

\* p&lt;.05 \*\* p&lt;.01 \*\*\* p&lt;.001

부부의 적응력이 높아 갈등이 적다는 결과로도 설명 될 수 있다.

또한 남편과의 대화시간이 30분이하인 집단에서, 대화에 만족하지 않은 집단에서, 갈등이 높게 나타

난 것은 부부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정우·장병옥(1987), 최규련(1993) 등의 연구에서 처럼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역할갈등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남편의 가사조력이 적은 집단에서, 불공평인지가 중간 수준 이상인 집단에서,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가 중간이하인 집단에서도 갈등이 높게 나타났는데 가사일을 여성의 역할로서만 간주하기보다는 남편의 적극적인 원조가 있을 때만이 부인의 역할갈등은 감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역할갈등이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 역시 선행연구들(최자령, 1991; Walter & Mckenry, 1985)과 마찬가지로 직업만족도나 남편과의 만족도, 지지도 등이 부인의 역할갈등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에 있어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대화 및 만족도를 증가시켜야 하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진보적인 태도가 요구되며 스스로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부인은 남편의 가사조력의 참여와 도움이 갈등을 감소시키는 중요요인으로서 남편을 가사조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모색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부양방의 상호작용이 중시되어야 하고 부인 스스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취업에 대한 지향성이나 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배경변인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  
배경변인에 따른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는 〈표 6〉과 같다. 남편의 경우 직업종류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무직과 전문경영직집단에서 높은 결혼만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인과의 대화에 만족한 집단에서, 부인의 직장생활에 대한 지지도가 중간이상인 집단에서, 자신의 직장생활에 대해 만족한 집단에서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과의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부인의 직장생활을 이해하고 부인의 취업을 지지하

며 아울러 자신의 직장생활에도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결혼만족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부인의 경우 남편과의 대화만족도, 남편의 가사조력도, 직장생활에 대한 지지도, 직장만족도 등에서 각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편과의 대화에 만족하거나 의사소통이 효율적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들(김화자·윤종희, 1991; 최규련, 1993)과 일치되었으며, 남편의 가사조력정도,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지지정도가 중간이상인 집단에서도 높은 만족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남편의 지지와 자녀양육분담 등을 행할 때 결혼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Benin & Agostinelli, 1988; Pina & Bengton, 1993; Vannoy & Philliber, 1992; Zvonkovic, Schmiege & Hall, 1994)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정도가 모두 중간이상인 집단에서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취업부인의 직업생활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Berry & Williams, 1987; Thomas, Albrecht & White, 1984; Vannoy & Philliber, 1992). 이상과 같은 결과는 결론적으로 남편 부인 모두 대화에 만족하고 서로 지지하고 조력하며 직장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가질 때 결혼만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 3. 배경변인,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거의 미미하므로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며, 그외 대화관련변인, 역할분담 및 태도변인, 직업관련변인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분석에 앞서 회귀진단과정으로 잔차분석을 통한 Durbin-Watson계수를 조사한 결과, 모두 2에 근접하고 있어( $1.869 < d < 1.915$ ) 잔차간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성선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

변 인			N	M	F	D
남 편	직업종류	단순노무직	13	85.00		B
		자영업·판매직	43	88.70		BA
		서비스직	18	85.94	2.89*	B
		사무직	69	94.84		A
		전문·경영관리직	17	94.00		A
	배우자와의 대화만족도	만족하지않는다	13	83.46		B
		보통이다	68	89.32	8.61***	B
		만족한다	79	95.94		A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 지지도	하	20	84.55		B
		중	58	90.52	6.36**	A
		상	82	95.09		A
부 인	직장생활에 대한만족도	하	23	84.96		B
		중	73	90.03	10.09***	B
		상	64	97.06		A
	배우자와의 대화만족도	만족하지않는다	33	75.97		A
		보통이다	62	87.48	20.53***	B
		만족한다	61	95.59		C
	남편가사 조력도	하	48	82.19		B
		중	48	87.92	6.39**	A
		상	60	92.27		A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 지지도	하	23	77.78		B
		중	49	86.45	8.39***	A
		상	84	91.38		A
	직장생활에 대한만족도	하	22	79.05		B
		중	65	88.88	4.60*	A
		상	69	89.64		A

\* p&lt;.05 \*\* p&lt;.01 \*\*\* p&lt;.001

다.

- 1) 배경변인과 역할기대가 역할갈등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력

배경변인과 역할기대가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표 7〉과 같다. 남편의 경우 역할갈등에 미치는 주요 변인의 설명력은 7%(p<.01)로 나타났고 부인과의 대화만족도( $\beta=-.16$ ), 역할

기대( $\beta=.20$ )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즉 부인과의 대화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역할기대가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의 경우 역할갈등에 미치는 주요변인의 설명력은 29%(p<.001)로, 남편과의 대화만족도( $\beta=-.26$ ), 부인이 지각하는 남편의 가사조력도( $\beta=-.19$ ), 역할기대( $\beta=.39$ ) 등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즉 남편과의 대화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남편의 가사조

〈표 7〉 배경변인과 역할기대가 역할갈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변 인	역할갈등		남 편		부 인	
	B	$\beta$	B	$\beta$	B	$\beta$
배우자와의 대화만족도	-.98	-.16*	-1.54	-.26***		
남편의 가사조력도	-.10	-.02	-.92	-.19**		
부인직장생활만족도	-.36	-.07	-.72	-.12		
역할기대	.58	.20**	.52	.39***		
F		3.10**		16.51***		
R <sup>2</sup>		.07		.29		

\* p<.05 \*\* p<.01 \*\*\* p<.001

력이 적다고 부인이 지각할수록, 역할기대가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부 모두 배우자와의 낮은 대화만족도와 높은 역할기대가 역할갈등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그외에도 부인의 경우 남편의 가사조력도 또한 역할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대화에 만족하고 적절한 역할기대를 할 때 역할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대화와 역할기대의 조정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며 특히 부인의 경우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남편의 가사일에 대한 원조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역할갈등의 영향력에 있어 부인의 경우 앞서 선정된 배우자와의 만족도, 남편가사조력도, 역할기대가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나 남편의 경우 미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남편과 달리 부인은 남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역할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남편에게는 역할갈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변인탐색이 고려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 2) 배경변인,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배경변인,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이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표 8〉과 같다. 남편의 경우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주요 변인의

설명력은 27%(p<.001)로 나타났고 부인과의 대화만족도( $\beta=.20$ ), 남편이 지각하는 부인직장생활 만족도( $\beta=.26$ ), 역할기대( $\beta=-.15$ ), 역할갈등( $\beta=-.22$ )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즉 부인과의 대화에 만족할수록, 남편이 부인직장생활에 대해 만족할수록, 역할기대나 역할갈등이 적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8〉 배경변인,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변 인	결혼만족도		남 편		부 인	
	B	$\beta$	B	$\beta$	B	$\beta$
배우자와의 대화만족도	3.06	.20**	5.44	.34***		
남편의 가사조력도	1.00	.08	1.99	.15*		
부인직장생활만족도	3.68	.26***	.77	.05		
역할기대	-.40	-.15*	-.46	-.13		
역할갈등	-.58	-.22**	-.60	-.23**		
F			11.48***		13.82***	
R <sup>2</sup>			.27		.32	

\* p<.05 \*\* p<.01 \*\*\* p<.001

부인의 경우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주요변인의 설명력은 32%(p<.001)로, 남편과의 대화만족도( $\beta=.34$ ), 부인이 지각하는 남편의 가사조력도( $\beta=.15$ ), 역할갈등( $\beta=-.23$ ) 등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즉 남편과의 대화에 만족할수록, 남편의 가사조력이 많다고 부인이 지각할수록, 역할갈등이 적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부부상호간의 대화만족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고 역할기대나 갈등 역시 중요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남편의 경우 부인의 직장생활만족도, 부인의 경우 남편의 가사조력도 등 상대방의 협조나 태도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부부간 결혼만족을 위해서는 빈번한 의사소통 기회를 통해 지속적이고 친밀한 대화의 만족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며, 지나친 역할기대와 갈등도 결혼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부부간 역할의 조화

를 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편의 경우 부인의 직장생활 만족이 가정에까지 연장되어 남편의 결혼만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부인의 직장생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며, 부인의 경우에는 남편의 가사조력이 결혼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취업여성의 직장과 가정역할수행부담을 느낄 때 남편의 가사조력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으로 작용하므로 남편의 가사일에 대한 적극적 원조가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간에 대화를 증진시키고 부인의 취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면서 지나친 역할기대와 역할갈등을 조정, 해결해 나갈 때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은 증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는 역할 갈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역할기대의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 자녀양육과 가사일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특히 부인은 그 외 건강문제, 직업적 성공 등에도 높게 나타났다. 시부모관계, 집안행사, 직업적 성공영역에서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시부모관계나 집안행사면에서는 남편이, 직업적 성공에서는 부인이 더 높은 역할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갈등의 경우 남편은 역할기대와 마찬가지로 자녀양육과 가사일에서 다른 영역보다 높은 역할갈등을 느끼고 있으나, 부인의 경우는 이외에도 집안행사나 직업적 성공에 있어 비슷한 정도의 역할갈등을 느끼고 있어 이들 영역에서 남편과의 기대차이가 갈등에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 중간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남편의 경우 애정적 부부관계가, 부인의 경우 시가와의 관계영역에서 높은 결혼만족을 보였고, 또한 자녀와의 관계나 디스트레스정도가 낮을 때 다른 영역보다 다소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배경변인에 따른 역할기대의 차이를 보면, 남편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그 외 관련변인에서는 직업보다는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집단에서 역할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집단, 남편 소득이 101-150만원이상인 집단, 부인소득이 91-120만원이상인 집단, 직업종류가 사무직인 집단, 부인이 불공평을 더 인지한 집단, 직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가 큰 집단,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한 집단에서 역할기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른 역할갈등의 차이를 보면, 남편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그 외 관련 변인에서는 성역할 태도가 중간과 보수적인 집단, 부인의 직장생활의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 역할갈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결혼기간은 11년이상인 집단, 남편과의 대화시간이 30분이하인 집단, 남편과의 대화에 만족하지 않은 집단, 남편의 가사 조력도가 적은 집단, 불공평을 더 인지한 집단,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지지가 낮은 집단,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이 낮은 집단에서 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남편의 경우, 직업이 사무직과 전문직인 집단에서, 부인과의 대화에 만족한 집단에서, 부인의 직장생활에 대해 지지를 많이 한 집단에서, 자신의 직장생활에 만족한 집단에서 결혼만족은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남편과의 대화에 만족한 집단에서, 남편의 가사조력이 많은 집단에서, 자신의 직장생활에 대해 만족한 집단에서 결혼만족은 높게 나타났다.

셋째, 배경변인과 역할기대가 역할갈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남편의 경우 부인과의 대화만족도, 역할기대에서 부인의 경우 남편과의 대화만족도, 부인이 지각하는 남편의 가사조력도, 역할기대 등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배경변인과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서는 남편의 경우, 부인과의 대화만족도, 남편이 지각하는 부인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할기대, 역할갈등이 주요 영향변인이며 부인의 경우 남편과의 대화만족도, 부인이 지각하는 남편의 가사조력도, 역할갈등이 주요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자녀양육이나 가사일 등의 영역에서 여전히 남편이나 부인 모두의 역할기대 혹은 역할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이중노동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부인의 경우 직업적 성공영역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적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여성 역할의 대안이 충분히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자녀양육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육시설확충 등의 사회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가정내적으로는 생활습관의 변화 등 가사노동의 간소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나 역할갈등 또는 결혼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부상호간의 대화만족도와 역할갈등, 특히 부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가사조력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부간 대화를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남편의 가사참여로 상호역할갈등을 조정,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남편이 부인의 취업에 대해 충분히 수용하면서 전통적 역할개념에 따른 역할기대를 수정해 나갈 때 맞벌이 부부의 건강한 가족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남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직장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부인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중요 변인으로 취업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직업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성역할태도, 직업만족도, 직업에 대한 남편지지도 등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요인들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취업부인의 직업과 가정의 조화 있는 공존을 위해서는 부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남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이 중시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강성희(1989). 취업주부의 직무만족도와 역할갈등 도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 2)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 석사논문.
- 3) 김득성(1980). 한국 도시 부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일반부부와 문제부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논문.
- 4) 김명자(1981).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른 가족역할 수행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3), 69-81.
- 5) 김미란(1985).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관련요인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 6) 김미영(1985). 아버지의 역할과 유아의 지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7) 김수연·김득성(1994). 맞벌이 부부의 웅집 및 적응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 (3), 121-134.
- 8) 김순주(1994). 가정내 남편의 역할수행에 대한 부부의 기대 및 평가와 결혼만족도. 서울대 석사논문.
- 9) 김영희(1992). 맞벌이부부가족에 있어서의 일과 가정생활의 역할긴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3), 271-283.
- 10) 김옥엽(1981).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의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11) 김정자(1990). 주부가 지각한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연구-취업주부를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논문.
- 12) 김화자·윤종희(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55-170.
- 13) 서광희·조병은(1993).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와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0 (1), 97-120.
- 14) 서동인(1985).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인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 15) 손현숙(1995). 주부의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

- 지 13(1), 47-57.
- 16) 안선영(1987).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갈등과 관련변인고찰.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17) 안은자(1983). 여학생을 통해 본 취업모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관한 일 연구-서울여자중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논문.
- 18) 이옥자(1983).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도 조사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19) 이정숙(1990). 기혼여교사의 가정생활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변인분석. 동아대 석사논문.
- 20) 이정연(1987). 주부의 결혼만족도 관련변수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1), 105-117.
- 21) 이정우·이미선(1995). 취업주부가 지각한 가족응집력·적응력 및 가사노동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3(3), 71-84.
- 22) ———·장병옥(1987). 기혼여성의 의사소통유형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숙명여대 아세아연구, 215-241.
- 23) 정혜정(1985).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 24) 조은숙(1990). 남편의 직무관련변수와 부인의 결혼적응간의 관계. 서울대 석사논문.
- 25) 최규련(1993).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 26) 최자령(1991). 취업주부의 역할관리전략과 역할갈등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27) 허영옥(1993).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여교사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 28) Bahr,B.G., Chappell,C.B. & Leigh,G.K.(1983). Age at marriage, role enactment, role consus and marital satisfaction. *JMF* 45(4), 795-803.
- 29) Benin,M.H. & Agostinelli,J.(1988). Husbands' and wives' satisfaction with the division of labor. *JMF* 50(2), 349-361.
- 30) Berry,R.E. & Williams,F.L.(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 A path analytic approach. *JMF* 49(1), 107-116.
- 31) Burk,R.J. & Weir,T.(1976). Relationship of wives' employment status to husband, wife, and pai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JMF* 38(2), 278-287.
- 32) Burr,W.R., Day,R.D. & Bahr,K.S.(1993). *Family science*. Pacific Grove, Calif : Books/Cole Publishing Co.
- 33) Erickson, R.J.(1993). Reconceptualizing family work : The effect of emotion work on perception of marital quality. *JMF* 55(4), 888-900.
- 34) Frone,M.R., Barnes,G.M. & Farrell,M.P.(1994). Relationship of work-family conflict to substance use among employed mothers : The role of negative affect. *JMF* 56(4), 1019-1030.
- 35) Galambos,N.L. & Silbereisen,R.K.(1989). Role strain in West German dual-career households. *JMF* 51(2), 385-390.
- 36) Houseknecht,S.K. & Macke,A.S.(1981). Combining marriage and career : The marital adjustment of professional women. *JMF* 43(3), 651-662.
- 37) Jenkins,M.P. & Crouter,C.A.(1990). Men's provider-role attitudes. *Journal of Family Issues*, 11(2), 136-156.
- 38) ——— & Folk, K.(1994). Class, couples, and conflict : Effects of the division of labor on assessments of marriage in dual-earner families. *JMF* 56(1), 165-180.
- 39) Keith,P.M. & Schafer,R.B.(1985). Role behavior, relative deprivation and depression among women in one and two-job families. *Family Relations* 34 (2), 227-234.
- 40) Kelly,R.F. & Voydanoff,P.(1985). Work/family role among employed parents. *Family Relations* 34(3), 367-374.
- 41) Kingston,P.W. & Nock,S.L.(1987). Time together among dual earner coup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3), 391-400.
- 42) Kurdek,L.A.(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 resolution styles. *JMF* 57(1), 153-164.
- 43) Mederer, H.J.(1993). Division of labor in two-earner homes : Task accomplishment versus household management as critical variables in perceptions about family work. *JMF* 55(1), 133-145.
- 44) Pina,D.L. & Bengton,V.L.(1993).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wives' happiness : Ideology, employment, and perceptions of support. *JMF* 55 (4), 901-912.
- 45) Roach,A.J., Frazier,L.P. & Bowden,S.R.(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MF* 43(3), 537-546.
- 46) Sakyi,Y.O. & Rollins, B.C.(1989). Competence and reciprocity in the performance of family roles by husbands and wives. *Family Perspective* 23(1), 41-54.
- 47) Saxton,L.(1972). *The individual, marriage and the family*(2nd ed). BelmontWadsworth. Sears,H.A. & Galambos,N.L.(1992). Women's work conditions and marital adjustment in two-earner couples : A structural model. *JMF* 54(4), 789-797.
- 48) Seccombe,K.(1986). The effects of occupational conditions upo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 An application of Kohn's theory. *JMF* 48(4), 839-848.
- 49) Spanier,G.B.(1976). Measuring dyadic ajustment new scale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iar dyads. *JMF* 38(1), 15-30.
- 50) Spitz,G.(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 A review. *JMF* 50(3), 595-618.
- 51) Stanley,S.C., Hunt,J.G. & Hunt,L.L.(1986). The deprivation of husbands in dual-earner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Issues* 7(1), 3-20.
- 52) Tiedje,L.B., Wortman,C.B., Downey, G., Emmos. L., Biernat,M. & Lang,E.(1990). Woman in multiple role : role-compatibility perceptions,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JMF* 52(1), 63-72.
- 53) Thomas,S., Albrecht,K. & White,P.(1984). The determinants of marital quality in dual career couples. *Family Relations* 33(4), 513-522.
- 54) Vannoy,D. & Philliber, W.(1992). Wife's employment and quality of marriage. *JMF* 54(2), 387-398.
- 55) Voydanoff,P.(1988). Work role characteristic, family structure demand, and work/family conflict. *JMF* 50(3), 749-762.
- 56) Voydanoff,P. & Kelly,R.F.(1984).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MF* 46(4), 881-892.
- 57) Walter,C.M. & McKenry,P.C.(1985).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rural and urban employed mothers : A research note. *JMF* 47(4), 1067-1071.
- 58) Yove,S. & Brett,J.(1985). perceptions of division of housework and child care marital satisfaction. *JMF* 47(3), 609-618.
- 59) Zvonkovic,A.M., Schmiege,C.J. & Hall,L.D.(1994). Influence stragies used when couples make work-family decisions and their importance for marital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3(2), 182-188.